

<팔재계수계 실천대법회>

법 어

조계 도량이 깊어가는 가을 향기로 가득합니다. 전국 포교사님의 수행과 전법의 서원, 그리고 보현행원의 길 또한 다함없이 향기롭고 깊기만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법연은 우리 종단과 불교를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포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금식하면서 철야정진 팔재계 수행을 한다는 소식은 많은 불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재계를 통한 지계실천운동이 벌써 12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포교사만의 행사가 아닌 범 재가불자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계(戒)는 부처님의 행(行)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禪)이 부처님 마음이고 교(敎)가 부처님 말씀이지만 계행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정예하께서 지계청정(持戒淸淨)을 종단의 첫째 교시(敎示)로 내려주신 것도,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어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으라는 깊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함경>에 “재가불자는 5계를 일생동안 지키는 것보다 8재계를 단 하루 지키는 것이 수승하다”고 하셨으며, <지재경>에는 “하루 낮과 하룻밤 청정하게 함으로써 아라한에 이른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팔재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팔재계는 개인에게는 출가자 못지않은 치열한 발심과 정진으로 종교적 정화를 이루게 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즐거워지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친애하는 포교사 여러분!

우리 종단은 그동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반성하며, 낡은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진정성으로 새롭게 변해가자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곧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모두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롭고 너그러운 우리의 발심이 크나큰 사건사고로 분열과 혼란에 있는 사회를 행복과 희망의 빛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포교사 여러분께서 소중한 발원을 올곧게 실천하는데 언제나처럼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종단이 추진하는 ‘붓다로 살자’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스님과 신도가 함께 주인이 되어 정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붓다의 향기를 발하며 구체적인 바라밀행을 이 땅에 구현해 내야합니다.

포교사님들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스님과 신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희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불법을 방방곡곡으로 전파하여 이 사바세계가 정법으로 바로 서고 성실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앞장서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제12차 팔재계 수계 실천대법회를 청명한 기운으로 축하하며, 포교사단의 향기로운 기운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9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